제3강 발터벤야민 : 기술복제 시대와 미디어

(1교시) J_Jgjin03_031222_01

◎ 기술복제시대의 대두

◆ 예술 vs 기술

전통적 복제 방식이 판화, 회화 등에서 보듯 인간의 장인적 생산이라면 현대의 기술 복제시대란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화의 시대를 말한다.
벤야민은 19세기 부르주아지의 삶을 연상시키는 '예술'의 자리에 새로이 '기술'이 등장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에서 '기술'의 물신성이 아니라 그것의 현대적 미감, 진보성에 내기를 건다.

◆ 기술 복제의 특징

벤야민이 모던 시대에 새로 등장하는 경향으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기술복제의 가능성'이다. 시뮬라크르를 대표하는 영화와 사진에는 '원작'이 없다. 오히려 원본을 뛰어넘는 사본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술 복제된 영상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며, 원본이 갖는 공간적, 시간적 구속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킨다.

마르셀 뒤상,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

복제 기술이 일정한 특정 단계에 이르면 아예 원작의 생산 자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베끼는 수준을 넘어 거꾸로 예술에 변화를 끼치는 전복적인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사물의 권위이며, 이를 **"아우라의 붕괴"**라 부른다.

◎ 아우라의 붕괴

아우라: 원작을 감싸고 있는 신비한 분위기. 문화적 전통 속에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작용

www.artnstudy.com

하는 예술 작품의 유일성.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어떤 먼 것의 일회적 나타남"을 일컫는다.

벤야민은 기술복제의 '아우라의 파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통의 거부는 모더니즘의 첫째 계명인 것이다.
아우라의 붕괴는 원작 뿐 아니라 지각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대상에서 껍질을 떼어내는 일, 곧 아우라를 파괴하는 일은 현대적 지각의 고유 특성이다.

아우라의 붕괴는 제의 가치를 전시 가치로 전환시킨다. 예술품의 예배 가치는 줄어들고 대신 전시 가치는 커진다.
세속 종교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마지막 시도가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신의 자리에 예술을 앉히는 이 세속 종교를 벤야민은 신이 없는 신학, "부정의 신학"이라 부른다.
벤야민은 종교적 가치가 정치적 기능으로 바뀔 것이라 예언했고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이미 反예술을 추구하며 창작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2교시) J_Jgjin03_031222_02

◎ 시각에서 촉각으로
전통적 예술은 독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대의 현란한 영상 매체는 우리의 지각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
현대 지각의 특징은 시각이 아닌 '촉각'이다. 이때의 촉각은 촉지적인 감각이 아니라 공감각적인, 전체적인 감각을 뜻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예증이 바로 **영화**이다.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연속되는 연극과는 달리, 영화는 여러 개의 개별적 작업의 집합이다. 영화의 끊임없는 영상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충격효과를 준다.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충격효과가 바로 촉각적 효과이며, 벤야민은 이 때문에 영화를 본다는 것은 "현대의 지각 단련을 위한 훈련"이라 말한다.

◎ 영화 예술의 혁명성
브레히트는 관중이 극 속에 몰입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것이 기존의 미적 가상을 깨버리는 **'소격 효과'**이다.
영화(사진)는 **시각의 무의식적 층위**를 보여준다. 소위 '낯설게 하기' 로서,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해왔던 것을 새롭게 꺼내어 보여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브레히트적 '소격 효과' 기법과 '낯설게 하기' 기법이 영화 예술과 사진 예술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매체의 성격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www.artnstudy.com

외젠 앗제, 「넝마주이의 '빌라', 마세사街, 파리, 1910」

(3교시) J_Jgjin03_031222_03

◎ 대중과 매체

현대의 무수한 정보의 홍수를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산만할 수밖에 없다. 벤야민은 이 **'산만함'의 새로운 지각 방식이 예술을 대하는 대중의 수용 방식을 변화시켜 그들에게 비평가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았다.**

"산만함"이라는 표현은 원래 예술을 대하는 대중의 천박한 태도를 일컫는 경멸어에 가깝다. 벤야민은 그러한 대중이 최초로 예술수용자로 등장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벤야민은 영화를 통해 대중의 각성과 계급적 조직화의 수단을 기대했다. 그러나 영화에서 '대중운동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를 보는 그의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이미 자본주의가 영화의 가치를 '교환가치'의 증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파시스트들에 의해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나아가 그것은 파시즘을 강화하는 데에 복무했다. 심지어 그것은 '아우라의 붕괴'가 아니라 더 큰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데에 이용되었다.

세르게이 M. 에이젠슈탄인의 <전함 포템킨>, 1925

www.artnstudy.com